

2023년 5월 21일(가해)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백)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전담신부 :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5월]



복음화 지향 :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

교회 운동들과 단체들이 자신들의 복음화 사명을 날마다 재발견하여 고유한 은사로 세상의 필요에 봉사하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주님 승천 대축일이며 홍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을 기뻐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 인간의 품위를 들어 높이신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로 다짐합니다.

제1독서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1,1-11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화답송 시편 47(46),2-3.6-7.8-9 (◎ 6)

◎ 환호 소리 가운데 하느님이 오르신다. 나팔 소리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다.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1,17-23

<하느님께서서는 그리스도를 하늘에 올리시어 당신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복음 환호송 마태 28,19.20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28,16-20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영성체송 마태 28,20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알렐루야.

영성체 후 묵상

천사는 말합니다. “왜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가 지니게 된 희망과 받게 될 상속의 영광을 알고, 하느님을 찬미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 오늘의 복음 묵상 - 강수원 베드로 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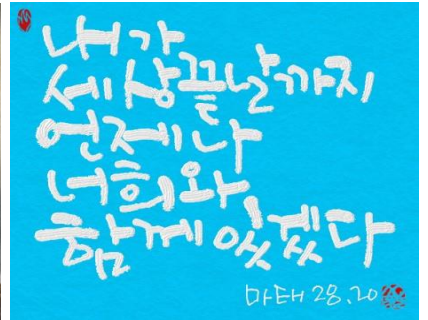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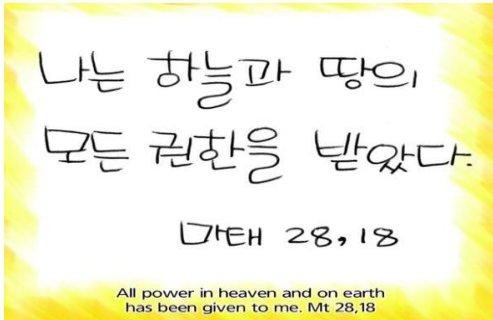
구원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과 승천은 단일한 구원 사건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요한 14,2). 주님께서서는 지상 사명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으셨고, 우리는 그분을 따라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느님께서 주님의 승천으로 우리를 들어 높이셨습니다' (본기도 참조).

부활하신 주님께서서는 제자들을 갈릴래아로 부르셨습니다(마태 28,10 참조). 그들이 처음 부르심을 받은 곳으로 말입니다. 주님을 버리고 숨어 버린 제자들이 그분을 만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나섰던 그 첫 마음을 되찾도록 불러 주신 것입니다. 그 갈릴래아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하신 말씀은 '전권 선언'(18 절), '세례와 가르침의 명령'(19-20 ㄱ절), '영원한 현존 약속'(20 ㄴ 절)이었습니다.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 명령을 지키도록 가르쳐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상 명령'(Great Commission)으로, 교회의 가장 고귀하고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절대적 권능'과 '영원한 현존'은 세상 모든 이가 하느님을 알고 또 그분에게서 희망과 영광을 누리도록 이끄는 교회의 사명(제 2 독서 참조)이 세상 끝 날까지 이어지도록 요구합니다.

주님께서 오르신 하늘만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왜 하늘만 쳐다보며 서 있느냐?"라고 말합니다(제 1 독서 참조). 우리는 하늘만 바라보는 공허한 신앙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하느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의 삶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났던 나만의 갈릴래아로 돌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분의 뒤를 따라 승천하는 삶의 여정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복음 필사 |



'주님 승천', 요한 케르백 작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five horizontal dotted lines.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주님 승천 대축일과 홍보 주일의 의미와 유래

주님 승천 대축일은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날입니다. 주님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난다는 의미가 아닌 승천을 통해 감춰져있던 하느님의 거룩한 신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은 부활 대축일 이후 40 일이 되는 여섯 번째 목요일지만 한국을 비롯해 이날이 공휴일이 아닌 나라에서는 그 다음 주일(부활 7 주일)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냅니다.

[주님 승천 대축일 유래와 의미] '다시 오심' 준비하며 선교 사명 되새겨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는 주님 승천 대축일을 '세계 사회 커뮤니케이션의 날' (World Communications Day)로 제정했습니다. 대중매체를 통한 교회의 여러 가지 사도직 수행을 효과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정하였으며 한국교회는 이날을 홍보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기사 전문] <https://tinyurl.com/3rwk2r5u>

[홍보 주일, 관련 수호 성인들] <https://tinyurl.com/5var32cm>



주님 승천 대축일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각 주일의 뜻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2023년 제 57차 홍보 주일 교황 담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홍보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으로 말하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여야 합니다"**(에페 4,15)라는 주제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교황님께서 좋은 소통을 위한 조건으로 "마음으로 말하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를 권하시면서, 이 마음은 가고, 보고 그리고 경청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는 마음이자, 개방적이고 환대하는 소통의 방식을 향하여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경청을 실천하고 자기 관점을 편파적으로 주장하기를 포기한다면, 대화와 나눔의 역동, 곧 진심 어린 소통의 역동 안에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경청한 다음에야 우리도 사랑으로 진리를 따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때로는 불편할지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사랑 없이, 마음 없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황님께서 **진심으로 소통하기, 마음과 마음으로 소통하기: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잘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노드 과정 안에서 마음으로 말하기, 평화의 언어를 증진하여 영혼을 무장 해제하기**라는 소주제를 통해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한 경청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는 우리가 서로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나누는 선물임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전쟁 바이러스가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기 때문에 평화의 운명은 마음의 회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시면서, 닫히고 분열된 세상의 그림자를 걷어 내고 우리가 전해 받은 것보다 더 나은 문명을 건설하기 위한 올바른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각자는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도록 요청받았으며 특별히 커뮤니케이션 분야 종사자들에게 그들의 직업을 사명으로서 수행하도록 책임감을 촉구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cbck.or.kr/Notice/20230146>

초등부 세례교육 및 첫영성체 교리반 모집 제 18회 교육주간 (5월 22일-28일) 담화

- 대상: Year 3 ~ 6 재학 초등학생
- 기간: 2023년 6월 ~ 8월
- 시간: 매 주일 오후 1:15 ~ 2:30
- 신청비(교재비): \$30
- 문의: 양명식 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 문의 : 주정자 루치아

"친교(코이노니아, koinonia)는 교회의 전통이자 영성"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 문창우 주교님께서 "친교의 공동체를 지향하는 가톨릭 교육"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주교님께서 담화문을 통해 '친교의 교육 환경 조성', '친교의 교육자들의 양성', '친교의 교육 공동체 설립' 실천 사항들을 제안하셨습니다.

[담화문 전문] <https://cbck.or.kr/Notice/20230228?gb=K1200>



|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49

수신거부로 쓸데없는 우편물 줄이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33

TV 사용시간 1시간 줄이기
→ 0.66kg의 탄소발자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우리 공동체에서는 공동의 집인 지구와 환경생태 보호를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지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음식나눔, 다과 등의 행사시 개인용 텀블러를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4강 창세기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안소근 수녀의 구약 종주 |
구약의 전체적인 구성을 훑어봅니다.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37강]
삼손 비긴즈 (Begins)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판관기 5부 | 13-14 장

cpbcTV 가톨릭콘텐츠의모든것

최첨단 시대에

종교가 과연 필요할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김도현 바오로 신부 |
가톨릭 둘레 특강#4

미사 참례자수

5월 7일	성인 52 아이 20	5월 14일	성인 45 아이 18
-------	-------------	--------	-------------

우리들의 정성 (5월 13일(토)~ 19일(금))

권요순	김요한	김정수	남궁영근	양홍석	이지영	장호훈	주정자
교무금 \$355 (8 가정) / 봉헌금 \$385							

※ 교무금 온라인 납부 정보 Name: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062786 / Account Number: 000027424

봉사자 안내

	5월 21일, 주님 승천 대축일 (홍보 주일)	5월 28일, 성령 강림 대축일 (청소년 주일)
독서	장호훈 마르코, 서은주 데레사	김미현 보나, 이민정 글라라
예물봉헌	마르코반	마태오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21일) 마르코반 → (28일) 마태오반 → (6월 7일) 요한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월 첫째주 식사, 셋째주 간식): (21일) 요한반 → (6월 7일) 루카반

※ 매월 첫째주 식사나눔시 청년들을 위한 김치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미사성가 안내 (가사/악보 보기, 듣기, 다운로드 - 링크 클릭)

	입당	예물	영성체	파견
5월 21일	140 주의 승천 찬미하네	216 십자가에 제한되신	182 신묘하온 이 영적	137 부활하신 주 예수
5월 28일	142 오소서 성령이여	210 나의 생명 드리니	172 그리스도의 영혼	144 주의 얼이

♡ 권순주 리타(22일, 요한반), 이국원 필립보 네리(26일, 요한반)님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